

<http://dx.doi.org/10.17703/JCCT.2023.9.3.145>

JCCT 2023-5-17

간호학과 신입생의 전공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jor Perception of Nursing Freshmen

정호주*

Jung Hyo Ju*

요약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간호학 전공에 대한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간호학 전공 교육과정 개발 및 신입생 유치에 대한 입시전략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2021년 1학기에 개설된 신입생 필수 교양인 자기 탐색을 이수한 간호학과 신입생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15주 수업 후 참여자들이 작성한 학습일지였으며, 자료 분석은 Heieh와 Shannon이 제시한 전통적 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학 전공 입문 동기', '간호학 전공의 가치', '간호학 전공의 걸림돌'의 3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대학 및 학과는 중·고등학교와 연계한 체험형 학과 견학프로그램을 개발 및 진행하는 입시전략을 강화해야겠으며, 기초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공과목 수강에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겠다.

주요어 : 간호학과 신입생, 전공, 인식, 질적 연구, 내용분석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the nursing major curriculum and the admission strategy for attracting new students by identifying the perception of the nursing major among freshmen in the nursing department.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40 freshmen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among freshmen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who completed self-exploration, a required liberal arts course for freshmen opened in the first semester of 2021. Data collection was a study diary written by participants after 15 weeks of class, and the traditional content analysis method suggested by Heieh and Shannon was applied to data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three themes were derived: 'motivation for entering the nursing major', 'value of the nursing major', and 'obstacles to the nursing major'. Therefore, colleges and departments need to strengthen their entrance examination strategies to develop and conduct field trip programs for experiential departments linked to middle and high schools and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difficulties in taking major courses by providing subject and extracurricular programs targeting students who lack basic learning ability.

Key words : Content analysis, Major, Nursing Freshmen, Perception, Qualitative research

*정희원,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접수일: 2023년 3월 21일, 수정완료일: 2023년 4월 12일
게재확정일: 2023년 5월 1일

Received: March 3, 2023 / Revised: April 12, 2023

Accepted: May 1, 2023

*Corresponding Author: jhj127656@hanmail.net

Dept. of Nursing, Dongshin Univ, Korea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 신입생 시기는 대학 생활 4년의 성공률을 예측할 만큼 중요한 시기로 학교에서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돕고자 한다면 가장 집중적으로 관심과 지도를 해야 할 시기이다[1]. 간호학과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자신의 전공과 교육과정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입시 위주의 교육에 익숙하여 전공선택의 과정에 능동적인 경험의 기회 부족뿐 아니라[2], 타 전공 학생들보다 많은 분량의 다양한 전공과목을 정해진 기간 내에 습득해야 하고, 다른 전공들에 비해 과중한 학습량에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3].

전공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부적응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휴학, 자퇴 등의 중도 탈락으로 이어진다. 간호학과와의 경우 전공 특성상 저학년 시기부터 이론과 실습에 전공 교과목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신체적, 심리적 부담감이 높으며, 이는 학과에 대한 부적응으로 대학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으로 이어진다[4]. 이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념과 업무 수행 능력 및 태도에 장애를 가져오게 되어 자신의 직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5]. 반면에 간호대학생이 자신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대학 생활 적응을 잘하게 되며 학과 수업 및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6]. 또한, 전공 만족도가 높은 간호대학생은 진로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목표가 분명하며 졸업 후에도 간호사로서 직업에 대한 기대와 간호사에 대한 정체성이 확고해지게 된다[7]. 즉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원활한 대학 생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자신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간호대학생에게 전공 만족도는 대학 생활 및 진로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인해 전공 만족도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전공 만족도에 관련한 요인들을 확인하는 연구[5][8-10]가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의 결과에서는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전공 만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것은 미흡하며, 전공 만족도를 향상을 위한 대안이나 해결책 역시 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준 변수들을 높이거나 낮추기 위한 프로

그램을 시행하거나 개발할 것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연구 대상 역시 간호학과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간호학과 신입생의 전공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에는 제한점이 있다. 다만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공 만족도 관련 연구가 소수 보고되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전공 만족도와 대학 생활 적응과 관련성을 확인하는 연구들[11-13]이었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실제적인 대안 제시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전공 만족도 향상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간호학과 신입생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겠다. 즉, 자신의 전공을 어떤 이유로 선택하게 되었는지, 전공에 대한 가치와 전공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을 파악한다면 학생들의 요구도에 맞춘 간호학 전공 교육과정 개발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지원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간호학 전공에 대한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 향상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간호학 전공 교육과정 개발 및 신입생 유치에 대한 입시전략의 기초자료 제공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간호학 전공에 관한 인식을 확인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J도 일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신입생으로, 2021년 1학기에 개설된 ‘자기 탐색’ 교과목(1학점, 15시간) 수강자 50명 중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모두 여학생이며, 연령은 평균 20세였다.

3. 자료 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 기간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7월 15일까지였다. 15주 ‘자기 탐색’ 수업에 참여한 후 학생들

이 작성한 학습 일지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성적 입력을 마감한 2021년 7월에 수강생에게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에 관해 설명을 한 후 자신의 학습 일지를 연구 자료로 사용해도 됨을 허락받은 후 연구를 시작하였다.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절차, 기대효과, 가능한 부작용, 자료 관리, 연구에 비 참여 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참여자의 개인 이메일로 보냈다. 참여자들은 동의서에 서명을 한 후 연구자의 개인 메일로 다시 동의서를 보내왔다.

4. 자료 분석

연구의 자료 분석은 Hsieh & Shannon[14]의 질적 연구의 전통적 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질적 내용 분석 방법(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은 텍스트의 내용이나 맥락적 의미에 주의를 기울이는 언어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분석 방법이다. 수집된 텍스트 자료를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효율적인 범주로 분류하기 위해 텍스트 자료를 집중적으로 읽고 검토하여 코드를 만들고 공통 코드를 추출하여 하위 주제를 도출했다. 하위 주제는 유사한 주제로 묶어 주제를 분류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 주제를 도출하였다.

III. 연구 결과

40명의 참여자로부터 얻은 원자료에서 추출한 의미 있는 문장을 분석한 결과 7개의 주제와 3개의 주제 모음으로 구성되었다(Table 1).

표 1. 간호학과 신입생의 전공 인식
 Table 1. Perception of Major in Nursing Freshmen

Categories	Subcategories
Motivation for entering the nursing major	Career program experience
	Recommendations from parents and friends
	Match my inclination
The Value of a Nursing Major	Practical studies closely related to real life
	Have a socially respected job
	Expansion into adjacent fields
Obstacles to Nursing Major	Major classes that are difficult for those who have given up on English
	Major classes unfamiliar to liberal arts students

1. 간호학 전공 입문 동기

참여자들의 간호학 전공 입문 동기는 한결같이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였다. 간호사에 대한 직업적 이미지는 참여자에게 자신의 성향과 적성에 잘 맞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중·고등학교 시절 진로 체험 및 보건 관련 동아리 활동 경험은 간호학에 관한 관심과 진학으로 이어졌고, 일부 참여자는 부모님, 담임 선생님 및 주변 친척들의 적극적인 권유로 간호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다.

고등학교에 입학 후 보건 동아리에 가입해 활동한 경험이 있다. 보건 동아리에서 보건 선생님을 통해 얼음찜질에 대한 상식을 가지게 되었고, 밴드를 붙이는 올바른 방법을 통해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배웠다. 그때의 경험을 통해 보건교사 꿈도 키우게 되었고, 그래서 간호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다

중·고등학교 진로 탐색 시간에 인근 대학에 진로 체험을 하러 가면 희망 학과를 모두 간호학과로 하였다. 중학교 때는 원하는 학과 지원의 선착순에 밀려 간호학과를 체험하게 됐는데 그때의 경험이 너무 좋았다. 직접 혈압도 재고 혈당도 측정하고, 교수님도 친절하셨다.

엄마도 간호사고, 사촌 언니도 간호사이다. 간호사에 대한 거부감은 별로 없고, 또 돈도 생각보다 많이 버는 것 같고 해서.

나는 모든 일에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주어진 일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성격이다. 간호사는 책임감이 강한 직업으로 그런 점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됐다.

2. 간호학 전공 가치

참여자들에게 간호학은 실생활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실용 학문으로 인식되었다. COVID-19 영향으로 예전에 비해 간호사의 직업적 위상과 대우가 예전과 달라짐은 참여자들에게 간호사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으로 인식되었다. 간호학을 전공함으로써 졸업 후 간호사라는 직업뿐 아니라 간호학의 인접 분야로까지 진로를 확장시킬 수 있는 점 또한 간호학 전공이 가지는 가치로 나타났다.

간호학은 간호사로 취업하는 데 필요한 공부를 하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 몸에 관한 공부이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변비가 있다고 하면 왜 변비가 생겼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 배우기 때문이다. 배운 내용을 바로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다.

간호사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고 일하는 직업이다. 지금 코로나19의 힘든 의료환경을 지키는 사람도 간호사이다. 그것 때문에 최근 들어 간호사의 위상과 이미지가 좋아진 것 같다. 직업의 수는 많지만, 사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직업은 많지 않

다.

간호학이라는 범주 안에서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배울 수 있다. 간호학은 몸, 질병 등에 관한 내용도 있지만 심리, 의사소통 등 관한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취업을 생각한다면 병원으로만 취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간호학을 베이스로 한 곳은 어디든 취업이 가능하다고 들었다.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방서 같은 곳으로.

3. 간호학 전공의 걸림돌

참여자들은 간호학 전공이 가지는 가치로 인해 자신의 전공에 만족하면서도 전공 학습과 관련한 공부의 부담감은 간호학 전공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간호학과 1학년 교육과정은 의학용어 및 인체구조와 기능의 교과목은 영어를 기반으로 한 수업이 진행되는 교과목으로, 이는 중고등학교 시절 영어 공부를 소홀히 한 참여자들에게는 영어에 대한 기초학습 능력이 부족하여 수업을 따라가기가 힘들었다. 특히 고등학교 때 문과반에 속해 생명과학을 선택과목으로 수강하지 못한 참여자들 역시 기초과학 지식이 부족하여 생리학 등 과학지식이 어느 정도 선행되어 학습되어야 할 교과목을 수강 시에는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로 쓰인 내용이 많고, 우선은 영어를 포기한 지가 오래돼서 영어 단어나 의학용어를 외우는 것이 힘들다. 교과서가 원서는 아니지만, 관련 수업에 참고하라고 올려주시는 동영상이나 그림 등이 영어로 된 경우가 많다.

일부 교과목 교수님께서도 몇 문제 정도는 영어로 시험문제를 출제하신다. 예를 들어 'jaundice' 황달을 맞히는 문제면 황달과 관련된 내용을 영어 설명문을 제시하는데 해석하기가 힘들다.

나는 뺏속까지 문과다. 과학과 수학에 노이로제를 느껴 일찌감치 포기하고 사탐(사회탐구)에 올인 했는데 대학에 와보니 1학년 전공 수업이 이과생 위주로 커리큘럼이 짜여있어 적응을 잘 못하겠다.

성적이 아주 상위권도 아닌 친구들이 생물학이나 생리학 시간에 대답도 잘하고 이해 속도도 빠른 것을 보면 문과생인 나는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진다.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간호학 전공에 관한 인식연구로 도출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와 결론을 맺어보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다양한 동기로 간호학에

입문하였다. 부모님과 지인의 권유도 있었지만 중·고등학교 시절 진로 체험을 통해 가진 긍정적 경험이 간호학 전공을 선택하게 된 이유라는 점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결과라고 생각한다. 진로 체험은 청소년의 진로 계획과 선택에 있어 자신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 정보를 습득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15], 최근 교육부에서도 진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체험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16]. 2020년 진로 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향후 가장 경험하고 싶은 진로 프로그램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진로 체험의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진로 체험 중에서도 현장 직업 체험형이 진로에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17]. 진로 체험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Lim & Hong[18]은 진로 체험이 청소년의 진로 의식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진로 체험에 대한 경험은 관심 있는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필요한 진로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의 진로 체험 및 동아리 활동이 자신의 전공과 진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체험과 박람회 등은 적합한 진로 방향을 안내하고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다. 따라서 대학 및 학과는 지역의 학교와 연계하여 전공 체험과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여 지역의 학생들에게 진로 설정과 전공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어야겠다. 이는 대학과 학과의 인지도를 높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 지역의 우수한 지역 인재 유치하여 신입생 확보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된다.

참여자들은 간호학 전공은 실생활과 밀접한 실용 학문으로, 간호학 전공 이후 진로가 간호사로 국한되지 않고 공무원 또는 교사 등 인접 분야로의 진로 확장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간호학의 실용성은 간호학과 교육과정상 1학년에서 배우게 되는 인체해부학과 생리학의 영향이 많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원인으로는 실용 중심의 사회 흐름을 반영한 결과로도 분석될 수 있다. 즉, 극심한 취업난에서는 취업률을 고려해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압도적인데 간호학 전공 역시 졸업과 동시에 취업으로 연결될 성공 확률이 타 전공과 비교하면 쉽기 때문이다. 또한 COVID-19의 영

향으로 간호직 공무원과 보건교사의 채용인원이 증가한 것, 소방직 공무원 지원 시 간호사를 우대해 주는 채용조건들이 참여자들에게 간호학 전공의 장점과 긍정적 가치로 작용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학생들 자신의 전공에 관한 긍정적 인식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학교 및 학과는 입학 때부터 전공별 맞춤형 집중 강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여 학업 성과를 증진하며, 간호학과 공학, 간호학과 예술, 간호학과 경영학 등 다른 학문과 결합한 융합형 교과목을 개발해 학생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학문을 습득해 나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순수학문과 실용 학문인 간호학을 잘 활용한다면 요즘 시대에 부합하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여, 졸업 후 병원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업으로 취업하여 대학의 취업률 지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한편, 참여자들에게 간호학 전공의 가치란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었다. COVID-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간호사는 의료 전달체계의 최전선에서 대상자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돌봄을 전달함으로써 급변하는 보건 의료환경 속에서 취약한 대상자들을 옹호(advocate)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간호하며 자신의 안위보다 환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며 간호하는 이미지를 각 언론 및 방송에서 다루게 됨에 따라 간호사는 국민의 높은 공감과 존경을 사게 되었고, 이는 간호사의 직업적 위상 및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실제 간호사 관련 기사의 보도량은 국내 COVID-19 상황과 맞물려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관련 기사의 보도 방향도 간호사에게 전반적으로 호의적이거나 중립적인 기사가 많았다[20]. 그러나 간호 학생들이 임상실습 동안에 경험한 의사와의 관계의 어려움, 독자적이고 자율성이 없는 간호사의 모습을 통해 부정적인 사회적 이미지를 형성하며[21], 학년이 올라갈수록 간호사 이미지가 낮게 나타난 것은[22] 대학교육과 임상 현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간호사의 위상과 긍정적인 이미지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간호교육에서의 간호 전문직관 수립과 임상 현장에서 업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간호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간호학이라는 전공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간호학 전공을 학습해 나가는 중 본

인의 기초학습 능력 저하가 전공 공부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 걸림돌은 영어와 과학에 관한 기초학습 능력이 부족한 참여자들이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계속되는 중등 교육과정의 변화와 입시전형의 다양화는 대학 신입생 간 기초학력의 편차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는 전공 학습에 대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문·이과 통합형으로 과목선택제를 시행하고 있고, 고등학교에서 수능 과학탐구영역의 선택과목을 무엇으로 선택하여 응시하였는지에 따라 대학 신입생의 기초학력 차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여기에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 정원을 채우기 어려운 대학이 증가하면서 대학에서는 학생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공 공부 학습에 필요한 영역이나 교과목 성적도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23]. 간호학 교육과정을 잘 이수하기 위해서는 배경지식에 해당하는 생물 및 생명과학의 학습이 필수적이며, 향후 취업 성과를 고려한다면 영어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학 및 학과에서는 다양한 학습 배경을 갖고 진학한 학생들이 향후 전공 학습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학 교양 및 전공 교과과정을 개선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겠다. 즉,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과학 관련 수업에 대하여 클리닉을 운영함으로써 일대일 지도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거나 영어 등 기초 학문 분야에 해당하는 보충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전공 학습 부담감을 줄이고 학업능력을 향상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간호학 전공에 대한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간호학과 교육과정 개발 및 우수한 신입생 유치를 위한 입시전략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먼저 간호학과 신입생이 간호학 전공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참여자들은 중고등학교 시절 진로 체험의 긍정적 경험을 토대로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으며, 간호학은 실용 학문으로,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전공의 우수한 가치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일부 참여자에게서는 영어와 과학의 기초학습 능력 저하가 전공 공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학 및 학과는 중·고등학교와 연계한 체험형 학과 견학프로그램을 개발 및 진행하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해야겠으며, 기초학습 능력이 저하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겠다.

본 연구는 일 대학의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으나 국내에서 이루어진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자신이 선택한 전공 인식에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고,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전공 관련 만족도를 파악하거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파악하는 양적 연구가 대다수 연구였던 반면,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본인이 간호학 전공을 선택한 이유 및 전공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장점과 어려움에 대한 경험을 파악함으로써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간호학과에 대한 관심과 입학 동기를 탐색한 연구 결과는 향후 대학의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입시 홍보 전략 및 프로그램을 기획시에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입학 후 한 학기를 지난 시점에서의 조사한 연구 결과이므로, 1학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전공에 관한 인식을 파악하는 반복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전공에 관한 인식을 일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 조사함으로써 간호학 전공에 관한 미래 변화에 대한 추세를 분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기초학습 능력 향상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J.Y. Park, C.H. Woo, J.H. Lee, and J.M. Kim, "The impact of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on learning persistence intention in freshmen in nursing colleg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learning motivat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4, No. 2, pp. 127-136, 2018. <https://dx.doi.org/10.5977/jkasne.2018.24.2.127>
- [2] E.M. Cho, H.I. Park, and S.M. Cheon,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social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freshmen's major selection motivation and college life adaptation," *Locality and Globality*, Vol. 42, No. 1, pp. 175-193, 2018. <https://dx.doi.org/10.33071/ssricb.42.1.201804.175>
- [3] J.H. Jeong, E.Y. Jung, and S.A. Ahn, "A relationship among learning interest, major satisfaction, learning flow of nursing freshme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8, No. 2, pp. 1-16, 2017. <https://dx.doi.org/10.22143/HSS21.8.2.1>
- [4] S.A. Park and K.S. Shin, "Effect of nursing student'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on career decision leve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4, No. 2, pp. 592-601, 2023. <https://dx.doi.org/10.5762/KAIS.2023.24.2.592>
- [5] Y.M. Cho, H.R. Kim and E.J. Kim, "Effects of girl and emotional intelligence(EI) on major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 *Health Service Management Review*, Vol. 12, No. 3, pp. 23-30, 2018. <https://dx.doi.org/10.18014/hsmr.2018.12.3.23>
- [6] K.I. Lee, and G.S. Jeong,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in major and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n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Vol. 8, No. 1, pp. 77-86, 2020. <https://dx.doi.org/10.15268/ksim.2020.8.1.077>
- [7] T.K. Kim, and Y.G. Bak,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n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8, No. 3, pp. 1-13, 2018. <https://dx.doi.org/10.21742/AJMAHS.2018.03.15>
- [8] S.A. Park, and E.J. Oh, "The influence of self-differentiation, active stress coping on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8, No. 6, pp. 393-406, 2017. <https://dx.doi.org/10.22143/HSS21.8.6.27>
- [9] H.S. Park, D.S. Choi, and H.C. Kim, "A study on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3, No. 1, pp. 2079-2091, 2022. <https://dx.doi.org/10.22143/HSS21.13.1.147>
- [10] J.K. Kim, S.J. Lee, and W.J. Kim, "Th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2, No. 3, pp. 111-121, 2022. <https://dx.doi.org/10.22251/jlcci.2022.22.3.111>
- [11] I.Y. Cho, "The relationship of career identity,

-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en.”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5, pp. 2937-2945, 2014. <https://dx.doi.org/10.5762/KAIS.2014.15.5.2937>
- [12] Y.H. Kim,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n college lif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an.”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1, pp. 104-113, 2016. <https://dx.doi.org/10.5762/KAIS.2016.17.11.104>
- [13] H.Y. Kang, “Relationships among self-efficacy, satisfaction in major, and college life adaptation in freshman nursing students.” Korea Academy of Care Management, Vol. 25, pp. 77-95, 2017.
- [14] S. Elo, and H. Kyngäs,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proces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62, No. 1, pp. 107-115, 2008. <https://dx.doi.org/10.1111/j.1365-2648.2007.04569.x>
- [15] H.J. Park, and S.H. Paik, “Positive impact and change on career awareness through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in the free semester.”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KNUE, Vol. 21, No. 1, pp. 11-31, 2015.
- [16] Y.H. Kim, and J.Hang, “Differences in career experience, parental career behavior, and teacher’ communication attitude by group of middle school students’ vocational identity statu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 21, No. 6, pp. 257-277, 2020. <https://dx.doi.org/10.24159/joec.2020.26.6.357>
- [17] Support for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career education center in 2020: elementary and secondary career education status survey. 2020, Sejong,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 [18] H.R. Lim, and S.P. Hong, “Classifying and characteristics analysis of youth participation in career experience program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33, No. 2, pp. 57-86, 2022. <https://doi.org/10.14816/sky.2022.33.2.57>
- [19] M.J. Kim, and H.K. Le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 valu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f nurses on patient advocacy.”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 27, No. 2, pp. 140-148, 2021. <https://dx.doi.org/10.22650/JKCNR.2021.27.2.140>
- [20] J.S. An, “Analysis of image of nurses on articles in Korean daily newspapers after corona pandemic.”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7, No. 1, pp. 66-74, 2021. <https://dx.doi.org/10.17703/JCCT.2021.7.1.66>
- [21] M.H. Park, and J.J. Yang, “A study on the nurse’s image perceived by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8, No. 1, pp. 107-121, 2002.
- [22] S.M. Koo, Y.M. Jang, and M.H. Kang,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ethical awareness, and nurse image on career identity in a pandemic situ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8, No. 4, pp. 371-381, 2022. <https://dx.doi.org/10.11111/jkana.2022.28.4.371>
- [23] M.K. Chung, and Y.J. Yang, “A study on basic learning ability support system for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professors and students’ perception and need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 22, No. 2, pp. 106-131, 2016.

※ 이 논문은 동신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